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

계열/유형	자유전공	지원학과	자유전공학부
수험번호		성 명	

[문제지 확인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문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입**합니다.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흑색) 필기도구(볼펜, 샤프, 연필 등)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 시에는 흰색 수정테이프 또는 지우개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재작성**하거나 **교정부호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두 줄 위에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검정색(흑색) 이외의 필기구 사용 불가,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2. 수험번호와 생년월일을 숫자로 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 표기하여야 합니다 (두 장 모두 표기).
3. **답안의 작성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답안 작성 영역 이외의 영역에 답안을 작성할 경우 작성한 내용이 채점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답안지를 구기거나 접는 행위 · 이물질을 묻히는 행위 등으로 답안지를 훼손**한 경우, 답안지 스캔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채점 시 **불이익 또는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답안지에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인적사항 및 특별한 표식**을 남기는 경우에는 **불이익 또는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수험번호 OMR 작성 착오(미체크, 오체크 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답안지는 총 **1장**이며, **문제 1번의 경우 제시된 작성 분량 미준수 시 감점 처리**됨을 유의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2026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자유전공학부)

(가) 우리가 흔히 대중문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대중 사회에서 대중 매체에 의해 형성된 문화를 지칭하는 때가 많다. 영어로 '매스 컬처(mass culture)'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의 개념이 이것이다. …… 대중문화를 매스 컬처라고 보는 관점은 대중이 출현한 근대 사회 이전의 엘리트 집단의 고급문화와 그 이후 대량 생산된 문화를 구분하여, 고급문화는 수준 높은 뛰어난 문화인 반면 대중문화는 수준 낮은 열등한 문화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매스 컬처라는 개념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경멸적인 대중의 개념 대신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 대중성의 개념을 써서 '파퓰러 컬처(popular culture)'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대중문화를 파퓰러 컬처라고 보는 관점에서의 대중은 '열등한' 다수가 아닌 '다양한' 다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로 사회의 모든 문화를 포함하며 고급문화 역시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매스 컬처라고 할 때 대중문화가 주로 문화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파퓰러 컬처는 문화의 소비 내지 수용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매스 컬처는 대량 복제가 가능한 대중 매체가 등장한 근대 자본주의 이후의 문화 산물로 한정되지만, 파퓰러 컬처는 자본주의 이전 서민 사이에 존재했던 문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물론 현대의 파퓰러 컬처는 대부분 대중 매체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문화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매스 컬처와 파퓰러 컬처는 같은 대상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삶의 양식'이라는 좀 더 보편적인 문화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 매스 컬처라는 개념으로는 대중적 문화 현상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나)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복합 상영 극장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 편의 영화가 여러 개의 상영관을 독식하는 일 없이 서로 양보라도 하듯 한 편당 한 개관씩을 차지하고 있는 만화경 같은 풍경은 오늘날 한국의 복합 상영 극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생소한 광경이었다. ……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스크린 독과점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한국 대작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져 온 것이 현실이다. 산업의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극장을 잡아 개봉하는 방식은 단기간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어 근시안적으로는 현명해 보일지 모른다. 관객이 많이 찾는 영화에 상영관을 배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식의 발상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독주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먼저 관객으로부터 영화 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소비자이면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문화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손상한다는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인권 침해임을 놓쳐선 안 된다.

또한 안전한 기획과 규모의 영화만 양산하고 그에 편중되는 배급 방식은 영화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신인 감독의 작품이 관객과 만나는 기회를 막고, 저예산이지만 다양한 색채의 영화가 창작될 기회를 축소하는 폐단이 심해지면서 현재의 이윤을 위해 미래를 갉아먹는 꼴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복합 상영 극장이 다양한 색을 되찾기 위해 소수의 대작 영화가 상영관을 독식하고 있는 영화관의 모습에 의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다) 영국의 대중음악 가수 샘 스미스의 데뷔 앨범 첫 번째 곡은 '내 머릿속에 돈(money on my mind)'이란 제목인데, 그가 외치는 바는 '내 머릿속에 든 것은 돈이 아니고 나는 엄연히 사랑을 위해 노래한다.'는 것이다.

>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난 압박을 느꼈어
> 난 숫자를 보고 싶지 않고 천국을 보고 싶어
>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곡을 써 줄 수 있느냐고 묻지만
> ㉠ **죄송하게도 행복하게 곡을 그렇게 만들 처지는 아니야**

19세기 클래식 음악과 그 이후에 등장한 대중음악의 역사를 이어 온 원리는 음악의 순수성, 진실, 정직과 같은 것들이었다. 많은 음악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혼을 불사르며 예술의 금자탑을 쌓아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음악도 예외 없이 생산, 유통, 소비라는 산업 경제의 틀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음반을 만들고 유통 계약을 하고 마케팅 계획을 짜는 모든 길목에서 음악과 자본주의의 만남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 1] 제시문(다)를 활용하여 샘 스미스가 ㉠ '**죄송하게도 행복하게 곡을 그렇게 만들 처지는 아니야**'라고 한 이유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대중문화가 직면한 현실을 제시문(가), (나), (다)를 모두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설명하시오.
(350점, 600~7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문제 2]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x(x-1)^2e^{2x}$ 과 $g(x)=-\frac{x}{\sqrt{1+x^2}}$ 가 있다.

(2-1) $g'(x)$를 구하시오. 또한 g의 치역을 구하시오. (80점)

(2-2) $g(x)$의 역함수 $g^{-1}(x)$를 구하시오. 또한 $h(x)=(g\circ f\circ g^{-1})(x)$라 할 때, 방정식 $h(x)=0$의 해를 모두 구하시오. (120점)

(2-3) (2-2)에서 정의된 함수 $h(x)$의 극댓값과 극솟값을 각각 구하시오. 또한 h의 치역을 구하시오. (단, $\lim_{x\to-\infty} f(x)=0$) (150점)